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20. Vol. 31. No. 2 pp. 179~204.
ISSN 1225-636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20.31.2.179

지역사회 범죄 수준과 부모 양육태도가 비행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주영선** · 정익중***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 수준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비행친구관계가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비행친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만 간주되어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행친구가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라면, 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도 청소년 연구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과 개인 수준의 다층구조자료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의 확장된 형태인 위계적 일반화 선형회귀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범죄율은 비행친구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비행친구 유무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감독에서 비행친구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과잉간섭에서 비행친구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애정, 방임, 학대는 비행친구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해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것은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을지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비행친구, 지역사회 범죄, 양육태도, 청소년비행, KCYPS 2010

---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주저자, youngsunjoo86@g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ichung@ewha.ac.kr

I. 서 론

청소년 범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청소년으로 인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율(흉악범죄, 폭력범죄)은 전년 대비 각각 0.4%,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기에만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범죄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밝혀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원인은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원인으로 청소년의 개인적인 자질과 속성, 가정환경, 학교와 또래집단을 주목해왔다.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자기통제력, 우울 등 개인적인 특성이 청소년비행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도 있으며(윤우석, 2011; 이성식, 2007a; 이성식, 전신현, 2009), 개인적 특성을 넘어서 가족, 또래집단, 학교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도 많다(김영희, 안상미, 2007; 노성호, 2006; 윤옥경, 2008; 이명진 외, 2007; 조윤주, 강란혜, 2010). 특히 비행친구는 청소년비행의 대표적이고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보고되었다(이은주, 2012; Matsueda & Anderson, 1998). 친구가 절도나 폭력 등 비행행동을 할 경우, 청소년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전염(contagion)효과로 인해 자신도 같은 비행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비행에 있어 비행친구의 영향력에 대해 밝혔으나(노성호, 2006; 이성식, 2007a, 2011; 현다경, 김형모, 2018), 비행친구를 종속변수로 예측하는 연구는 드물다.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의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원인이라면, 어떠한 요인이 비행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작업도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여,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비행친구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hetty et al., 2016; Wodtke et al., 2011). 빈곤하고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어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Harding, 2008). 청소년기는 가정 밖의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며(Karriker-Jaffe et al., 2013),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원을 주고받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은 비행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ncks & Mayer,

1990). 예를 들어,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 지역사회는 비행 청소년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을 수 있으며, 또 유해시설이 많아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늘어날 수 있다(Jencks & Mayer,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지역사회 상황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등을 바탕으로 인식적 측면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김재엽, 최선아, 임지혜, 2015; 김창익, 윤우석, 2013; 윤우석, 2014; 현다경, 김형모, 2018).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의 응답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대해 조사하여,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수준에서 회귀분석 하는 것은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사용하여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의 위계적 구조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지역사회 지표와 비행친구관계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비행친구 유무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및 적절한 감독은 자녀의 행동을 관리함으로써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줄이게 되어 간접적으로 청소년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비행친구와 접촉, 의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되도록 비행친구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위계적 자료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HLM)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범죄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범죄에 노출되는 것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행친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범죄의 영향력과 비행친구관계

청소년비행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Shaw와 McKay(1942)의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지역별로 다른 범죄율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으로, 지역사회의 해체 및 무질서가 지역 주민들의 사회통제력을 약화시켜 범죄 및 비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해체 및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이다. 지역사회의 해체 및 무질서는 빈곤율, 결손가정, 인종, 인구 이동 등으로 설명하였는데, 빈곤 수준이 높고,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며, 인구 이동과 높은 이주율을 가진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유대 및 조직화 정도가 낮아서 사회적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의 유대가 높은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행동을 규제하여 범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유대가 약한 지역은 사회적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사회해체이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한 연구들은 지역의 무질서가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결국 청소년비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Sampson et al., 1997).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사회의 불이익이 높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보다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Church et al., 2012; Chung, 2004; Duncan et al., 1994).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빈곤 수준과 유해환경 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중비행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주영선, 정익중, 2019a), 특히 주거와 지역사회가 이중으로 빈곤한 것은 청소년비행을 직접적으로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영선, 정익중, 2019b).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는 사회해체이론을 뒷받침하며 청소년비행에 있어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청소년비행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지만, 청소년비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비행친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의 영향에 민감하고, 또래집단에 동조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Crosnoe et al., 2003)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전염(contagion) 효과로 인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불이익이 높은 것은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청소년비행이 늘어나고, 점점 비행이 집단화되어 비비행 청소년도 비행친구의 영향력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비행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학습이론과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학습이론에서는 청소년이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비행행위를 학습하여 비행을 한다고 설명하고(Akers & Sellers, 2011), 하위문화이론에서도 비행의 집단성에 주목하여 비행에 우호적인 반항적 문화(counter-culture)가 비행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여 비행이 유발된다고 설명한다(Cohen, 1955).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 비행친구를 종속변수로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로 드물게 발견이 되는데, Harding(2008)은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의 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역사회 폭력의 영향은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김창익과 윤우석(2013)의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비행친구 수와 청소년비행 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의 빈곤 수준(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유일하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비행친구 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률, 이혼율, 지역사회 유대, 비공식적 사회 통제 등의 지역사회 특성은 비행친구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성 중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사회 범죄의 경우 Shaw와 McKay(1942)의 설명대로 사회해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범죄가 사회해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Harding, 2008; Venkatesh, 2000).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높으면 지역 주민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개입하고 감시하는 데 소극적이고 지역사회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Harding, 2008). 지역사회 범죄는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직접적으로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늘려 간접적으로

비행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 빈곤율 등 다른 지역 특성보다 범죄 수준은 더 가시적일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직접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행친구를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범죄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와 폭력 수준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측정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폭행, 절도 등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는지 등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인식 차원에서 지역사회 범죄의 영향력에 대해 측정한 것이다(문성호, 2000; 이지현, 2016).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범죄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김세원(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폭력범죄율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지만 청소년비행과 비행친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또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비행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행친구는 청소년비행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주목되어왔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게 비행친구를 종속변수로 하여 지역사회가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독립변수라면, 이를 예측하는 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은 범죄와 폭력이 만연해있는 경향을 보이며, 범죄와 폭력에의 노출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청소년비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죄를 중심으로 비행친구 유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부모 양육태도와 비행친구관계

부모 양육태도는 비행친구관계와 더불어 청소년비행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연구되어왔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와 적절한 감독은 자녀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을 감소시키고, 또한 부모의 통제와 감독으로 인한 긍정적 가치의 내재화로 인해 간접적으로 청소년비행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유대관계가 없으면 청소년비행이 증가할 수도

있다(김영희, 안상미, 2007; 백수정, 정익중, 2018). 이명진 외(2007)는 서울과 경기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과 소년원에 송치되어있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지위 비행과 법적 비행(절도, 폭력, 약물 복용, 성폭행 등)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인 학대와 방임이 높을수록 지위 비행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인 학대는 법적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년원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방임이 지위 비행과 법적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인 가정 내에서도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통제의 정도가 달라지고, 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Sampson et al., 199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친구관계에 영향을 끼쳐 간접적으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는 경우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낮아져 청소년비행이 감소할 수 있고,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내몰아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정익중 외, 2006). 조윤주와 강란혜(2010)는 한국아동・청소년 가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비행친구의 매개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가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였는데,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일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늘어나,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부모의 과잉간섭 행동은 자녀의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일탈적 행동을 하게 하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Nelson & Erwin, 2000).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거나 간섭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반항 수단으로 비행친구와 어울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나래, 정익중, 2012). 과잉간섭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뜻을 따를 것을 강요받으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의 과잉간섭을 받으며 자라나는 자녀는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낮아져, 비행친구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진다.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사회 범죄, 부모 양육태도, 비행친구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비행

친구와 교제할 가능성을 높이는 유인요인(pull factor)이 될 수 있으며, 미시적 수준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행친구 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요인(push factor)이 될 수 있다.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비행은 지역사회 범죄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비행친구의 매개를 통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범죄율이 높으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늘어나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달라져 비행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행친구를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나 매개변수의 역할로 제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의 초점을 달리했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비행친구는 청소년비행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며, 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비행친구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것은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주요 연구 집단이 되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범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범죄율이 높을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감독, 애정)를 가질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셋째,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방임, 학대, 과잉간섭)를 가질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학교 2학년으로,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이어지면서 학령기 아동의 발달문제가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거치며 부모보다는 또래 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새로운 청소년기 비행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오정수, 정익중, 2017).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2014년) 자료와 대검찰청의 시군구별 범죄분석 자료(2014년)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세 개의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2010년(1차)부터 2017년(8차)까지 매년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 지역사회 환경 등 이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2014년 기준 중학교 2학년 청소년 2,378명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와 가정환경, 비행친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를 분석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범죄분석 자료는 시군구별로 범죄 발생 건수를 총 건수 및 살인, 폭력, 재산 범죄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매년 범죄 발생 건수를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시점과 동일하게 2014년 범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사한 응답자의 시군구 지역 코드와 범죄분석 자료의 시군구 지역 코드를 머지(merge)하여 결합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99개의 시군구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비행친구 유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행친구 유무이다. 비행친구는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친한 친구 중 지난 일 년 동안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친구가 지위 비행 행동(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을 한 가지라도 하였을 경우, 비행친구가 있다(1), 지위 비행 행동을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을 경우 비행친구가 없다(0)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지역사회 범죄

본 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범죄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비행친구관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시군구 지역 코드와 범죄분석 자료의 시군구 단위의 지역 정보를 결합(merge)하여 지역사회 범죄를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범죄 변수는 각 지역별 전체 거주 인구 대비 살인을 제외한 폭행, 절도, 강도 등 형법 범죄 발생 수를 계산하여 구성하였다. 통계적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점수화(Z-score)하여 분석하였다.

(2) 긍정적 양육태도: 감독, 애정

부모 감독과 애정 변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지도・감독 변수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의 3개의 문항에 대한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시, 역점수화(reverse coding)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감독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0.75이다.

부모 애정 변수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의 4개의 문항에 대한 4점 척도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애정 변수도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0.83이다.

(3) 부정적 양육태도: 학대, 방임, 과잉간섭

학대는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

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에 대한 4개 문항의 4점 척도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0.84이다.

방임은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4개 문항의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0.73이다.

과잉간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에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의 4개 문항에 대한 4점 척도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간섭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신뢰도는 0.76이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청소년의 성별(남자/여자), 빈곤 가구 여부, 친부모 가정, 가구원 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로 여부이다. 빈곤 가구 여부는 가구별 소득을 2014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욕구소득비가 1 이하이면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였다(정익중, 2009). 즉, 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계산하여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이하면 빈곤가구로, 최저생계비 초과하면 비빈곤가구로 측정하였다. 친부모 가정 여부는 가족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원수는 가족 구성 변수와 형제자매수 변수를 이용하여 연속변수로 산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했을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로 여부는 일을 하는 경우 1, 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을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범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친구 유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선형모형(HLM)은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 구조(multi-level)자료에 적합한 통계 분석방법으로, 다층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수준에서 회귀분석 했을 경우,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되어 통계적 유의미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Raudenbush, 1995; 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측정한 지역사회 범죄율과 개인 수준에서 측정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비행친구 유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비행친구 유무는 이항변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계선형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독립변수들의 관계가 선형이고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McCullagh & Nelder, 1989).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의 확장된 형태인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분석 시 다수준 분석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에서 도출된 계수값을 확률로 바꾸어 지역 수준에서 종속변인의 변량을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Wald chi-square 검정통계량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evel 1: 비행친구유무 $= \beta_{0j} + \beta_{ij}$부모의양육태도 $+ \gamma_{ij}$

Level 2: $\beta_{0j} = \gamma_{00} + \gamma_{01}$지역사회범죄율 $+ u_{0j}$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3개의 위계적 일반화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성별, 빈곤 가구 여부, 친부모 가정 여부를 통제하여 지역사회 범죄가 비행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변수들과 함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감독과 애정 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범죄와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비행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모형 1의 변수들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방임, 학대, 과잉간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범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비행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치로 비행친구 유무, 지역사회 범죄, 부모의 양육태도, 통제변수의 평균(표준편차) 또는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비행친구 유무는, 비행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이다. 지역사회 범죄율은 평균 건수가 인구 10만 명 대비 462.73건(SD=167.76)이었고, 범죄율은 위계선형모델 분석 시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한 Z점수를 이용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의 감독은 평균 6.90(SD=1.69)이었으며, 애정은 평균 8.67(SD=2.30)이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방임은 평균 3.13(SD=2.18), 학대는 평균 2.55(SD=2.49), 과잉간섭은 평균 5.27(SD=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빈곤 가구 여부, 친부모 가정 여부, 가구원 수, 부모 교육 수준, 근로 여부가 사용되었는데, 약 47%가 여자청소년이었고, 8%가 빈곤 가구였으며, 90%의 청소년이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4.10명(SD=0.72)이었으며, 약 48%가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했다고 응답하였고, 약 37%가 어머니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8%가 아버지가 근로 중이며, 67%가 어머니가 근로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M/%	SD	N
	Level 2: 지역사회 범죄			
	지역사회 범죄율 (건수/10만명)	462.73	167.76	99
	지역사회 범죄 Z-score	0	1	99
	Level 1: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독립	감독 (0-9)	6.90	1.69	2,092
	애정 (0-12)	8.67	2.30	2,092
	부정적 양육태도			
	방임 (0-12)	3.13	2.18	2,070
	학대 (0-12)	2.55	2.49	2,070
	과잉간섭 (0-12)	5.27	2.72	2,092
종속 (Level 1)	비행친구 있음	30%		2,063
	여자	47%		2,070
	빈곤 가구 여부	8%		1,991
	친부모 가정	90%		2,058
통제	가구원 수	4.10	0.72	2,050
(Level 1)	아버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여부	48%		1,925
	어머니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여부	37%		1,960
	아버지 근로 여부	98%		1,927
	어머니 근로 여부	67%		1,958

2.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항변인인 비행친구 유무이기 때문에 이항변인을 이용한 다층모형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에서 도출된 계수값을 확률로 바꾸어 지역 수준에서 종속변인의 변량을 파악하였다(Raudenbush, 1995; Raudenbush & Bryk, 2002). 무조건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친구 유무의 지역별 분산을 분석하였다. 표 2와 같이 비행친구 유무에 대한 지역 수준의 분

산은 0.19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비행친구 유무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각 지역의 평균 비행친구의 계수가 0.300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의 승산(Odds)은 $e^{0.300}$=1.350이고 확률은 1/(1+exp(0.300))=0.426이기 때문에 범죄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사귀지 않을 가능성보다 약 1.35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층구조 자료를 고려한 위계적 일반화 선형회귀모형(HGLM)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무조건 모형 검증 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p
절편	0.300	0.015	20.67	0.000
무선효과	분산		χ^2	p
	0.199		32.52	0.000

3. 위계적 일반화 선형회귀모형 분석 결과

표 3은 지역사회 범죄가 비행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일반화 선형회귀모형(HGLM)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사회 범죄와 통제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모형 1에서 지역사회 범죄는 비행친구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20, p<.05).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사귀지 않을 가능성보다 1.20배 높아지는 것이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한 모형 2를 분석한 결과, 부모 감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승산이 감소하였다(OR=0.93, p<.1). 하지만 부모의 애정 수준은 비행친구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한 모형 3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과잉간섭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승산이 증가하였다(OR=1.06, p<.05).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비행친구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하여도,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높은 것은 비행친구를 사귈 승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R=1.18, p<.05). 부모의 감독이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과잉간섭이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을 증가시켜도, 지역사회 범죄는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통제변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여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를 사귈 승산이 남자청소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았다. 또한 아버지가 취직 중인 경우, 비행 친구를 사귈 승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가구 여부, 친부모 가정 여부, 가구원 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학 졸업 유무, 어머니의 근로 여부는 비행친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표 3

지역사회 범죄 및 양육태도가 비행 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Level 2						
지역사회 범죄	1.20*	[1.04, 1.39]	1.18*	[1.01, 1.37]	1.18*	[1.01, 1.37]
Level 1						
긍정적 양육태도						
감독			0.93+	[0.85, 1.01]		
애정			0.98	[0.93, 1.05]		
부정적 양육태도						
방임					1.00	[0.95, 1.05]
학대					1.01	[0.95, 1.07]
과잉간섭					1.06*	[1.01, 1.11]
통제변수						
여자	0.58***	[0.46, 0.74]	0.58***	[0.45, 0.74]	0.60***	[0.47, 0.77]
빈곤 가구	1.17	[0.64, 2.17]	1.07	[0.57, 2.04]	1.09	[0.57, 2.05]
친부모 가정	0.86	[0.19, 3.93]	0.81	[0.16, 4.00]	0.75	[0.15, 3.72]
가구원 수	0.99	[0.82, 1.20]	0.99	[0.82, 1.21]	1.01	[0.83, 1.23]
아버지 대졸	0.97	[0.70, 1.33]	0.99	[0.72, 1.38]	1.00	[0.72, 1.39]
어머니 대졸	1.23	[0.89, 1.71]	1.24	[0.89, 1.74]	1.20	[0.86, 1.67]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아버지 근로 중	0.50	[0.21, 1.22]	0.44+	[0.17, 1.12]	0.41+	[0.16, 1.07]
어머니 근로 중	1.11	[0.87, 1.42]	1.06	[0.82, 1.37]	1.09	[0.84, 1.41]
Wald chi2	31.55***		33.73***		33.68***	
AIC	1791.66		1715.12		1717.13	
BIC	1850.21		1783.73		1791.02	
N	1,515		1,448		1,448	

$^{+}p<.1$, $^{*}p<.05$, $^{**}p<.01$, $^{***}p<.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V. 결론 및 논의

일반적으로 비행친구는 청소년비행의 주요 독립변수로 분석되어 왔지만, 반대로 비행친구를 종속변수로 하여 어떤 요인이 비행친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독립변수라면, 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찾는 작업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정서적 기반이 되고, 또래집단으로부터 받는 인정, 소속감, 동질감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Crosnoe et al., 2003).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인 비행친구 유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원을 주고받는 중요한 장소로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 비행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Church et al., 2012; Duncan et al., 1994).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기 쉬워 직접적으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늘려 비행행동이 전염(contagion)되어 간접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도 비행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적절히 관리, 감독하거나 애정을 보인다면 비행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

도에 따라서 비행친구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의 자료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결합하여, 중학교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범죄가 비행친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지역사회 범죄의 영향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관련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 구조(multi-level)의 자료를 고려한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통계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역사회 범죄율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 어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가 비행친구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인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과잉간섭의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친구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사회 범죄는 부모 양육태도를 통제하더라도, 비행친구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범죄 수준과 비행친구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기존의 연구결과(Harding, 2008)와 일치하는 것이다. 김창익과 윤우석(2013)의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유일하게 비행친구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인구이동률, 이혼율, 지역사회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뿐 아니라, 지역사회 범죄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높은 범죄 수준은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와 접촉할 확률을 높여 결국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도 지지한다. 무질서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비행이 집단화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친구가 증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악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경찰 자원을 집중하거나, CCTV 숫자

를 늘리는 등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이 예방보다는 사후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비공식적 통제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커뮤니티 활성화가 용이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이 우리 지역을 경찰과 같이 지킨다'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이나 소외계층이 많은 우범지대는 철저하고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주민과 경찰이 함께 치안의 주체가 되어 주민 홍보, 집중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 나가야 한다. 주민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고 지역사회는 함께 범죄 예방활동을 하며 자신들이 느끼는 공통된 불안요소와 위험요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주민 요구를 토대로 치안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뿐 아니라, 비행행동이 집단화되지 않고,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을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활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비행친구 유무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과잉간섭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부모의 애착이나 방임, 학대는 비행친구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김경(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통제나 관리, 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애정과 같은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비행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애정은 비행친구 유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자녀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경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비행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비행친구와 청소년비행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김경(2010)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함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와 비행친구관계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사 대상자의 연령 차이에 따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부모의 감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고등학생 시기인 청소년 후기에서는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의 영향보다는 애정과 같은 정서적 유대감이 자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중학생인 청소년 중기에서는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줄이고, 청소년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달라져야 함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방임과 학대는 비행친구관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주와 강란혜(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청소년 가출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비행친구 유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중 유일하게 과잉간섭에서 비행친구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조윤주와 강란혜(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중2병”을 가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반항심을 불러일으켜 가정 밖의 친구관계에 의존, 비행친구를 사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행친구관계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은 청소년기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는,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비행친구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을지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더라도 자녀에 대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줄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자녀에 대한 애착과 적절한 감독을 통해 긍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고, 과잉간섭을 하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열악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정이 청소년의 일차적인 지지단위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역할

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처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맞춤형 부모 역할과 자녀양육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은 만족도가 높음에도 부모역할에 관심이 높은 신청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작 부모교육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소외받는 경우가 많다(오정수, 정익중, 2017). 따라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부모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 등 취약가정에 직접 찾아가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비행친구와의 교제나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횡단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비행친구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더 종단적으로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고려한다면 더 정확한 지역사회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분석단위가 시군구로,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지역사회 단위로 보는 데에 넓은 범위일 수도 있다.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특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좁은 범위의 읍면동 지역 단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등 자료 제공기관에서 생활영역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청소년비행에 있어 기존 연구에서 성별 차이에 대해 보고하였기 때문에(이성식, 2007b) 후속 연구에서 지역사회 및 부모 양육태도가 비행친구 유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의 차이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관계가 청소년비행에도 영향을 주는지 매개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지역사회 범죄가 비행친구관계를 통해 실제 비행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 (2010).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1-21.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8,** 101-135.

김영희, 안상미 (2007).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김재엽, 최선아, 임지혜 (2015).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111-135.

김창익, 윤우석 (2013).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비행친구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5**(2), 61-85.

노성호 (2006).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68,** 297-332.

문성호 (2000). 지역사회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특성 및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7**(1), 125-148.

박나래,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7,** 139-164.

백수정, 정익중 (2018). 아동학대가 청소년 온라인/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누적 위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35-253. doi:10.19034/KAYW.2018.20.1.10

오정수, 정익중 (2017). **아동복지론** (제3판). 서울: 학지사.

윤옥경 (2008). 청소년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연구, 38,** 107-138.

윤우석 (2011).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과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22**(1), 137-172.

윤우석 (2014). 지역사회해체 인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검증: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3**(1), 117-146.

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4**(2), 9-42.

이성식 (2007a).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이성식 (2007b). 청소년비행 원인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패널 두 연령집단에서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6,** 265-292.

이성식, 전신현 (2009).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한 비행이론들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2), 91-111.

이은주 (2012).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 비행여부와 비행수준을 구분한 이원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185-215.

이지현 (2016).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층모형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55,** 143-171.

정익중 (2009).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113-125.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조윤주, 강란혜 (2010).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행친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8), 177-196.

주영선, 정익중 (2019a).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청소년연구, 30**(4), 33-62. doi:10.14816/sky.2019.30.4.33

주영선, 정익중 (2019b).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3-26. doi:10.17000/kspr.26.4.201912.3

통계청 (2018). **2018 청소년 통계.** www.kostat.go.kr

현다경, 김형모 (2018). 청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 및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4), 1-26. doi:10.21509/KJYS.2018.04.25.4.1

Akers, R. L., & Sellers, C. S. (2011).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luation*. CA: Routledge.

Chetty, R., Hendren, N., & Katz, L. F. (2016).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s on children: New evidence from the Moving to Opportunity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4), 855-902. doi:10.1257/aer.20150572

Chung, I. J. (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antisocial behavior: Focusing on psychosocial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4,* 355-380. doi: 10.1023/ B:JOPP.0000018055.27460.ea

Church, W. T., Jaggers, J. W., & Taylor, J. K. (2012). Neighborhood, poverty, and negative behavior: An examination of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ocial control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1035-1041. doi:10.1016/j.childyouth.2012.02.005

Cohen, A. L. (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gang*. New York: Free Press.

Crosnoe, R., Cavanagh, S., & Elder, G. (2003). Adolescent friendships as academic resources: The intersection of friendship, race, and school disadvantage. *Sociological Perspectives, 46*, 33-52. doi:10.1525/sop.2003.46.3.331

Duncan, G., Brooks-Gunn, J., & Klebanov,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2), 296-318. doi: 10.1111/j.1467-8624.1994.tb00752.x

Harding, D. J. (2008). Neighborhood violence and adolescent friend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2*(1), 28-55.

Heck, R., & Thomas, S. (2009). *An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techniques* (2nd ed.). New York, NY: Routledge.

Jencks, C., & Mayer, S.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in a poor neighborhood. In L. Lynn, & M. McGeary (Eds.), *Inner-city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pp. 111-186).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13). Associations of neighborhood and family factors with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2*, 861-877. doi:10.1007/s10964-012-9832-1

Matsueda, R. L., & Anderson, K. (1998). The dynamics of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36*(2), 269-308. doi:10.1111/j.1745-9125.1998.tb01249.x

McCullagh, P., & Nelder, J. A. (1989). *Generalized linear models* (2nd ed.). London: Chapman & Hall.

Nelson, J., & Erwin, C. (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New York: Prima.

Nezlek, J. B.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for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2), 842-860. doi:10.1111/j.1751-9004.2007.00059.x

Raudenbush, S. W. (1995). Hierarchical linear models to study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on development. In G. J. Mahwah (Ed.), *The analysis of change* (pp. 165-201). NJ: Lawrence Erlbaum.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Shaw, C., & Mc Kay, H.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mpson, R., Raudenbush, S.,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doi:10.1126/science.277.5328.918

Wodtke, G., Harding, D., & Elwert, F. (2011). Neighborhood effects in temporal perspective: The impact of long-term exposure to concentrated disadvantage on high school gradu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13-736. doi:10.1177/0003122411420816

ABSTRACT

The impact of neighborhood crime and parenting attitudes on delinquent peer relationships

Joo, Young Sun* · Chung, Ick-Joo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neighborhood crime rates and parenting attitudes are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delinquent peers among 2n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utilizes neighborhood crime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and E-local services and adolescent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findings suggest that higher neighborhood crime rates are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having delinquent peers. Additionally, having parents who exhibit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especially in terms of supervision, is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having delinquent peers, while having parents with negative parenting behavior, such as over-control, i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having delinquent peers. Although parenting attitudes are controlled for in the analyses, living in neighborhoods with high crime rates increases the odds of having delinquent pee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lleviating neighborhood crime and promoting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can reduce the chance of having delinquent peers, which may, in turn,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Key Words: delinquent peer, neighborhood crime, parenting attitudes, juvenile delinquency, KCYPS 2010

투고일: 2020. 2. 29, 심사일: 2020. 5. 7, 심사완료일: 2020. 5. 14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Research Professor, youngsunjoo86@gmail.com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ichung@ewha.ac.kr